

구례 학생들이 펼치는 꿈 '나는 나비!'

아침을 열며

정연권

구례군도시재생지원 센터장



로봇과 탄소제로, 구례 책 나눔 등 학생들의 건전한 미래교육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노인 인구가 많은 구례에 시끌벅적 학생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틀간 일정은 구례군의 미래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토지초등학교 4학년 김모 학생은 "너무 즐거워요. 어린이날보다 더 재미있어요. 체험 부스도 많고 공연도 하고 빵도 먹고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라고 즐거워 했다. 학부모 장모씨는 "구례 교육환경이 좋아 초등 과정만 이수하려고 서울에서 유학 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처럼 아이들 교육에 열의를 갖고 이끌어 준다면 왜 구례를 떠나겠어요. 내년에도 이 행사하는 거죠?"라고 웃는다. 감동과 함께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열어주었으면 하는 염원의 목소리였다.

신체성 교육장도 진취적이고 소통하는 열정 덕택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김옥란 과장의 어머니 리더십도 돋보였다. 교육청 직원과 구례 전체 17개교 선생님들의 합작품이다. 행사를 기획 추진한 최관현 장학사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마인드를 가졌다. "장학사는 일꾼이고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기획했을 땐 막막하고 어렵지만 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주고 구례군청을 비롯한 기관단체에서 도움을 줘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돼 행복합니다."

떡빵 체험코스에서 우리밀 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구례군도시재생센터와 MOU를 체결한 9명 대표의 열정과 따뜻한 사랑 때문에 맛이 너무 좋아 조기에 마감되어 늦게 왔던 학생들에게 미

안했다. 업체뿐만 아니라 방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성취감이 높아 구례스러운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자리매김하였다.

구례역 재교점 이은하 대표는 열정의 대명사다. 우리밀 빵을 들고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홍보한다. 구례당 한주영 대표는 임신한 몸으로도 참여했다.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고 곧 엄마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빵을 만들었죠." 이 스테이크샵 김솔기 대표는 "구례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녔다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골목길 여전사 스웬 이재영 대표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빵을 먹이겠다며 작은 냉장고를 준비해 나왔다. 은카롱 이은경 대표는 학생들이 좋아할 모양과 색으로 마카롱과 휘낭시에를 만들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행사 후 주말에 학생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매출 급증했다며 놀라워했다. 이지원 고예로 대표가 직접 농사를 지어 만든 블루베리 식빵, 빵앗간 김은희 대표의 감을 넣은 감빵과 녹차빵 역시 건강빵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에 인기가 많았다. 우리밀로 만든 쿠키와 빵을 만드느라 밤을 꼬박 지새우고 나왔다는 사나래밀 김보경 대표는 "피곤하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에 피곤함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모두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이번 행사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내년에는 유치원생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처음 시작했으니 다음에는 발전하리라 믿는다.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했으면 한다.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구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힘차게 응원한다.

社說

아동학대 촘촘한 관리 시스템 기대한다

해남에 아동보호기관 개관

전남지역 5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남에 문을 열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복지안전망이 촘촘해지고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되레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역설이다. 이번에 개관한 아동보호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관한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남·장흥·강진·완도·진도 등 5개 군지역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과 치료,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모두 4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했지만 관할지역이 넓고 사례관리 아동 수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전남도는 남부권에 추가로 기관을 설치하고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 조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위스타트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하고 올해 1월

부터 임시사무소에서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 6103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학대의심사례는 96.6%인 4만 4531건에 이른다. 광주·전남 또한 각각 798건과 19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8명이던 학대에 의한 아동의 사망도 지난해 50명으로 급증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각각 2명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전반적인 폭력 피해율도 16.3%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전남도는 신설된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부모교육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해자의 80% 가까이 부모였고 발생 장소도 81.3%가 가정이었다. 더 촘촘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아이들이 불행한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9000만원 신기록 전남 한우 명성 지켜야

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지난 19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한 2023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에서 영암 서승민 농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서씨는 지난 2013년에 이어 같은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서씨가 출품한 한우도 대회 역사상 가장 높은 9005만 8000원의 신기록에 낙찰됐다. 1++A 등급에 출하체중(1028kg)과 도체중(647kg)이 다른 수산 한우보다 월등히 높아 전국 평균 도매가격(kg당 1만8000원)의 7.7배가 넘는 kg당 14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68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전남 40농가가 참여해 13개 상 중 가장 많은 3개 상을 차지했다. 대통령상의 서씨 외에도 농식품 장관상에 함평 나형규 농가, 축산관련 단체협의회장상에 화순 김정란 농가가 수상했다. 전남도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최근 10년간 6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전남 한우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농

장별 유전자 및 유전체 분석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축산을 통해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도내 한우 농가에 공급하며 전남 한우 개량을 가속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내 한우농가는 1만 5957곳으로 육우 64만 3000두를 사육하고 있다. 전국 대비 17% 점유율로 경북 다음으로 가장 많다. 현재 한우 산업은 사료값 상승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고난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 가격 파동으로 영세 한우농가의 대량 폐업도 우려된다. 여기에 소립스킨병까지 확산되면서 한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우농가에 닥친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보여준 사육 노하우가 지역내로 확산되고, 한우 개량화에도 더욱 매진해야 할 때다. 한우가 혈값에 팔리지 않도록 유통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소값은 떨어졌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가격은 그대로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한우농가는 품질 좋은 한우 생산에 매진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적정가에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9일(현지시각) 케네벡강 범람으로 메인주 주도 오거스타 거리에 떠내려가는 프로판 가스통에서 가스가 분출되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동해안을 덮친 폭풍의 여파로 메인주 케네벡강의 수위가 계속 불어나는 등 동부 일부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오거스타=AP/뉴시스

서석대



폴리처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현대인들은 답답한 도시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이들은 선천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녹색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도시인들의 녹색갈증 해소 방안으로 '치유농업'이 뜨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농촌 경관과 환경, 농업 활동과 같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신체와 정서 등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전국의 지자체마다 원예식물이나 텃밭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유농업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환경·경제적 가치는 5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일찌감치 치유농업에 눈이 뜬 유럽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치유농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광주시 역시 지난해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사업, 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광주시 치유농

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달 알코올 중독관리자를 대상으로 '마음채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식물·동물 등 농업·농촌자원 활동을 통해 알코올 중독 관리자의 신체·정서·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됐고, 치유농장 등지에서 △식물을 활용한 생활공간과 나 가꾸기 △신체이완과 심리 안정을 위한 산책과 허브족욕 등을 진행했다. 센터는 내년부터 치유농업시설을 조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치유농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도 영농 활동과 연계해 치유서비스와 돌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요즘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지방소멸 위기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전남지역은 지방소멸 대응이 최대 현안이다. 치유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광주·전남을 전국 최고의 치유농업 메카로 발전시켜 지방소멸도 막고,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정책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